남이 이러고 저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내 주장을 세워라

☞ 19면에서 계속

돌아가듯이 인간도 추위를 무릅쓰고, 또는 더위를 무릅쓰고, 또는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떨어졌다 피고 떨어졌다 피고 이렇게 지속되는 나날을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서 계발을 한다면, 나무와 나무를 접을 시키듯 열매와 열매를 또 달리, 모양이 달라져서 나오게 만들고, 그 연관성으로 인해서 진화력으로서 창조력을 키우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는 정신 개화가 되고 나아가서는 마음의 실상이, 즉 생명의 실상이 그대로 마음으로서, 한마음으로서 존재가 되고 근본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촛불이 있다 할지라도 성냥을 그어 대지 않으면 불이 되지 않듯이 그거는 누가 켰든 간에 내가 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켜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이 아니라 마음의 불이죠. 그러니 안팎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작용이, 전부 여러분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나의 그 생명의 실상이 있기에, 거기는 없다 있다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이기에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실상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도 몸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만 자기라는 그 자체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움죽거리고 있죠. 꿈을 꿨다 안 꿨다 하는 것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이지마는 항시 밤낮이 없이 움죽거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잠을 자도 잠이 없고 낮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돌아다닌다는 자체가 없고. 여러분은 몸이 다니니깐 내가 다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나 아닌 참나가 있기에 바로 내가 움죽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꿈에는 꿈대로 내가 움죽거리는 게 아닌가요? 바로 나 아닌 내가, 그 분신이 움죽거리고 있는 그건 환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실제적인 환상입니다. 생각 없는 일을 하는 법 없고 생각 없는 일을 설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나기 이전에 인연의 소치로 만난 인연들이죠. 인연들이 바로 꿈에는, 우리가 하루를 지낸다 하면 바로 일 년을 지낸 듯이, 하룻밤에 일 년을 지낼 수도 있고 삼 년을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수없는 나날을 보내면서 살다가 끝을 마치지도 못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선 깨다 보면 새로 한 시다 새로 두 시다 세 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깨 보니깐 그렇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룻밤에도 몇 차례씩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에 도달해 있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그 시간을 따지면서 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따질 필요도 없는데 왜 그걸 따져야 하느냐? 한두 사람이 산다면 따질 필요도 없지만 천차만별로 모두 여러 생명들이, 아니 여러 물체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시간도 정해 놓고 달도 정하고 해도 정하고 날도 정했죠.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문란해지고 또는 충성이나 효도도 없을 것이고 아주 고등 동물의 그 행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질서를 지키게 해 놓은 거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에도 현실에도 미래에도 우주 삼세를 두고 말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 하면 억겁을 통해서도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그 몸 바꿈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과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 과거에 수없이 탈바꿈을 해 가지고 자기 형상을 형성시켰건만 자기는 그것을 아예 모르는 채, 지금 현실의 형성된 나가, 바로 내 모습이 난 줄 알고 시간만 따지고 급급해서 날짜만 보고 앨 쓰고, 나가 나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옛 물도 없고 옛 산도 없고 옛사람들도 없다고요. 거기에는 언어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작용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자기의 마음의 지혜에 따라서 인연의 업보를 지을 수도 있고 인연의 업보를 부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의 업보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자꾸 자기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매사를 자기가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업보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모습은 지속될 수 없지만 참자기는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참나는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나입니다. 유생 무생이 한데 합쳐지고 일체 만물이 다 합쳐진 이 내공에 의해서 모든 것은 자기가 할 탓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깐 그대로, 아니다 기다 이 언어가 붙지 않는 이 자리에, 꿈이다 생시다 이러한 게 붙지 않는 자리, 즉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 이런 말이 붙지 않는 자리, 생사윤회라는 말이 붙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여하게 내가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달을 할 수 있고 상신할 수 있고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를 받지 않으려면

질문 불교에서는 인연과보의 법칙을 말씀하시는데 이 인과를 받지 않고 그냥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핵과 같은 겁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데 중심, 심봉과 같고요.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그 심봉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그 자체를 볼 때 그 심봉이 꿰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그런 핵과 같은 심봉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거는 움죽거림이 없이도 힘을, 아주 광대무변하게 힘을 낼 수 있는 자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길 따라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내고, 여러 가지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는 바로 핵을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움죽거리는 바람에 바로 이 물질인 나의 이 기계는 돌아갑니다. 그래 삼위일체가 구성돼 가지고 계합이 돼서 같이 길고 짧음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쪼그만 거 하나를 우리가 볼 때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리가 터지는 거죠.

그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면, 정맥 동맥이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 속에서 그 수억 마리의 생명들이 바로 세포나 오장육부의 모든 소임을 맡아 가지고 운행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속의 의식들이, 즉 마음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움죽거려 주지 않는다면 지금 죽은 송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들을, 아, 이 마음들과 내 악업 선업이 한데 뭉친 이 자체, 바로 그 속에서 악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가난도 나오고 안 되는 것도 나오고…. 아이 글쎄,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될 만하면 안 되고, 야,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또 될 때는 또 되고. 이런 것도 다 전자에 내가 한 거만치 인연을 가지고 나온 바로 인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 아버지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몸 하나가 나와요. 그럴 때 회심곡에도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 이 세상에 탄생하니 20, 30이 당도해도 철이 없어서 그 부모의 생각을 못 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이 피를 모두 받고 또는 살을 받고 뼈를 받은 게 그 정자 난자, 엄마 아빠에게서 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지금 생명들이 있는 거는,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것은 여러분이 예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그 살면서 행해 온 행적이란 말입니다. 행적의 인연. 그 인연들이 모두 같이 이렇게 지금 포함된 겁니다.

이걸 다 녹이려면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다 놔야 그것이, 전자의 그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것이 다 녹아서 마음이 전부 한마음으로 뭉쳐져 가지곤 천백억화신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로 화한다 이거죠, 몸뚱이 속에 있는 마음들이. 그럼으로써 내 이 혹성 하나에 나가, 그냥 보살들이 수호하고 다니죠. 보하고 다니니까 누구 하나 나한테, 강도가 온다 하더라도 강도가 칼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그 수호신이 수호하고 다니죠.

그러니 그 인과를 내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 만들려면 다 거기 놓아야 합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다 자기한테서, 거기 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그 무엇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는 대로 자기 중심 자리에 다 맡겨 놓으셔야 합니다.

마음공부와 인연이 없는 것은

질문 우리가 이 마음공부와 인연이 된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생계를 꾸려 나가기 바쁘거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공부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 본인의 잘못이겠습니까.

답변 그러니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법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항력을 느끼고요, 어떤 분은 받아들이고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저항력을 느끼고 그러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저항력이죠. 나는 그냥 얘기만 해 드릴 뿐이지, 나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믿으라는 데, 자기 믿는 것에 저항력을 느낀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럼 이 마음 도리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도리를 몰라서 다음 생에 이 세계에 또다시 짐승으로나 또 사람으로나 좌천되지 않느냐. 또 그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마는 본래 천성이 착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말입니다. 그런 착한 분들은 저절로 저절로 그런 인연이 닿고, 저절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알아지는 겁니다.

뭐, 저는 누구한테서 들어서 그랬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나무한테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돌부리를, 아,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독하니까. 나무를 봐도 참 내 생명같이 아끼면서 그 나무 한 가장구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내가 살기 위해서 네 가장구를 꺾으면 네 가장구에서 피가 나올 테지.' 하고서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린 맘에 그런 그때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 앞에 열쇠가 주어지지, 착하지 못한 사람 앞에는 열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연도 주어지지 않고요.

> 모든 것을 다 자기 근본 마음자리에다 무조건 맡기고
> 물러서지 말고 패기 있게 그냥 그렇게 나가시면서 점프하시면,
> 그대로 그렇게 될 수 있고 인생을 편안하고 보람 있게 사실 수 있습니다.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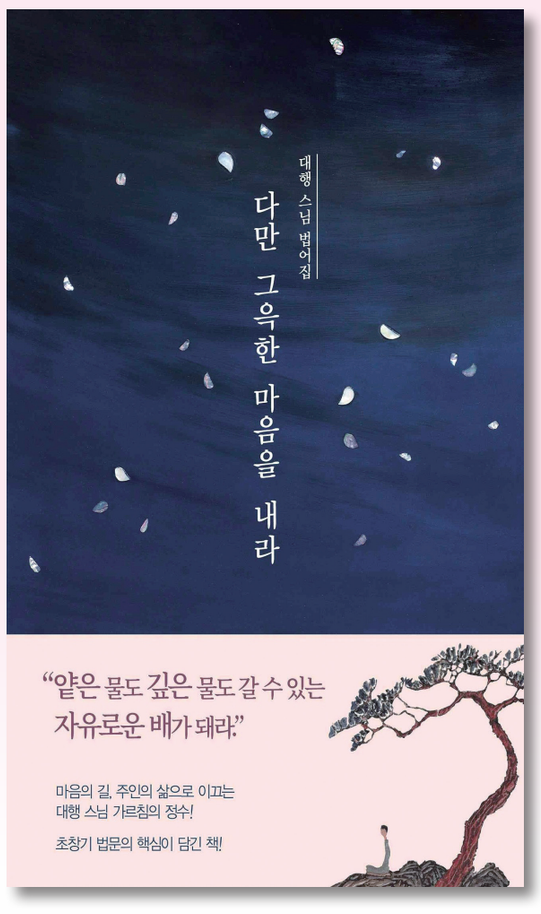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